

## 경향신문

# 한국 경찰 '1호 여성 경무관'은 독립운동가 황현숙 선생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9.10.22 10:49 | 수정 : 2019.10.22 14:28



1948년 12월 황현숙 치안국 여자경찰과장 인천여자경찰서 순시 기념사진. 첫번째 줄 왼쪽에서 5번째가 황 경무관이다. 경찰청

한국 경찰 최초의 여성 경무관은 독립운동가 황현숙 선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황 선생이 1948년 11월 경무관으로 특채돼 당시 치안국 여자경찰과장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의 여성 경무관은 2004년 1월 승진한 김인옥씨로 알려져 있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의 뒤를 잇는 경찰 고위 계급이다. 1948년 당시에는 '경무관'이 경찰 총수인 '이사관'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장급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946년 7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신설하며 여자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에 여자경찰서가 설치됐다. 여자 경찰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 관련 사건 처리 업무를 주로 맡았다. 여성 권익과 계몽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출신이 많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총경은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지냈다. 유관순 열사의 올케인 노마리아 경감은 대구여자경찰서장을 지냈다. 황 경무관은 여자 경찰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다. 당시 경찰 계급은 치안국장인 이사관, 치안국 과장급인 경무관,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경감 등으로 구성됐다.

황 경무관은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1919년 3월20일 천안 입장면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공주형무소에 갇혔을 때 유관순 열사와 함께 복역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는 동맹휴학의 배후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도 일제에 저항하는 단식 투쟁을 벌였다. 광복 후에는 조선여자국민당을 창당해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194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초대 내무장관 윤치영의 권유로 경무관에 특채돼 제3대 치안국 여자경찰과장을 지내고 1950년 퇴임했다. 황 경무관은 1964년 10월20일 별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 5명을 포함해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55명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